

1998學年度
碩士學位請求論文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삼위일체론 이해

An Understanding on the Doctrine of Trinity
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Calvin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김도희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삼위일체론 이해

An Understanding on the Doctrine of Trinity
i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Calvin

指導 김 성 봉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8년 12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조직신학전공

김 도 희

김도희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 은철 印 Seon

審査委員 (이동진) 印

審査委員 이 은기 (인)

審査委員 김성봉 印 W.B. Kim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1998 년 12 월

謝 辭

새롭게 시작하면서 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引導하신 하나님께 먼저 感謝와 찬양을 돌리며, 아울러 이 순간까지 염려와 깊은 관심으로 돌봐주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장모님, 김정자 勸士님께 감사드리며, 학업을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며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잔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리에 대한 관심과 바른 안목을 갖도록 끊임없이 교훈해 주시고 교정해주셨을 뿐 아니라, 本 本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김성봉 教授님께 심심한 謝意를 표합니다.

그리고 3년의 科程 동안 關心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 박종근 院長님께 지면으로나마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동현이의 獻身과 또한 함께 기도하며 염려해준 김종한 長老님과 형님 내외에게도 감사드리며, 끝으로 3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指導해 주신 教授님들과 學友들께 도 感謝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8년 12월 일

김 도 희

목 차

I. 서 론	1
A. 문제 제기	1
B. 연구 목적 및 방법	2
II. 칼빈의 삼위일체론 위치와 인식 근거	4
A. 「기독교강요」에서 삼위일체의 위치	4
B. 삼위일체의 인식 근거	5
III. 칼빈의 삼위일체론	9
A. 삼위일체 본질 이해	9
1. 하나님의 무한성	9
2. 하나님의 영성	10
B. 삼위일체의 정의와 용어 해석	11
1.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	12
2. 삼위일체에 대한 정식 호칭과 용어	14
a. 삼위일체와 위	15
b. 본질	19
c. 위(person)와 본질(essence)의 관계	22
C. 성자의 영원한 신성과 삼위일체	23
1.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	24
a. 말씀의 선재(pre-existence)	24
b. 말씀이신 창조주의 신성	26

2.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27
a. 메시아	27
b. 전능하신 아버지	28
c. 구원자이신 여호와	29
d.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심	30
e. 만군의 여호와	31
f.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32
g. 성전에 임하심	33
3. 신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34
a.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	34
b.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본 신성	40
c.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본 신성	43
d.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신성	45
e. 기도와 그리스도의 신성	46
D. 성령의 신성	48
1.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의 사역	48
a. 성령의 신성을 나타내는 창조 사역	48
b. 성령의 선지자 파송과 성령의 신성	49
c. 성령의 만물의 보존과 신성	50
d. 성령의 구원 사역과 신성	51
2. 성령에 신성에 대한 증거	51
a. 성전의 개념 일치	52
b. 성령의 신성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	52
c. 성령의 신성에 대한 바울의 증거	53

d. 예언의 창시자로서 성령의 신성	54
e.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이사야의 증거	54
f. 성령의 신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55
E.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위성	56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	56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성	57
a. 성부와 성자의 구별	57
b. 성부와 성령의 구별	60
c. 성자와 성령의 구별	61
d.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의 구별	61
F.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	62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성	62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와 일체성	64
a.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정한 순서	64
b.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	65
IV. 결 론	68
V. 참고문헌	72

I. 서 론

A. 문제의 제기

고대 교회가 확립한 삼위일체 교리의 전통은 종교개혁시대를 거쳐서 여전히 오늘날도 신학적 전통으로 남아있다. 이는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랫동안 많은 신학적 논쟁의 핵심이 되어왔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유일신론을 삼신론으로¹⁾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한데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반대는 신적 인격을 그와는 전혀 다른 개별적인 인간 자아들에 대한 관념 속에서 고찰하려는 그릇된 개념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이나 이를 반박하려는 사람들 모두는 성경적 근거에서 보다 오히려 사변적 근거에서 삼위일체론을 펼치는 시도들로 인해 오히려 삼위일체에 관한 오해를 더욱 증가시켜왔다. 이런 시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계시 행위 보다 경험적인 철학적 고찰들로부터 형식논리를 사용하여²⁾ 끌어내고자 함으로써 세속적인 반발을 받기 쉬운 논증이 될 수 있었다.

1) 루이스벨푼. 기독교교리사. 성광문화사. 109p 단일신론이 나타나서 단일성과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강조하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오리젠은 영원방생의 관념으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본체에 대하여는 제2위가 제1위에 예속된다고 정의하였다.

2) 이신건 교수는 「조직신학 입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왜 1=3이고 3=1인지 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계산을 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인물이 세 가지의 역할을(아버지, 남편, 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빗대어 삼위일체를 해명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흔히 사색이나 공상에 빠지거나 전혀 비기독교적인 결론을 내리기 쉽다”라고 하였다. 이신건. 조직신학입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38p

분명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와 성도 사이에 가르치고 이해되어진 하나님이 성경적 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질은 안개 속에서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개인의 고정관념 틀 속으로 프리즘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대부분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성부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성자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성령만을 강조하는, 어느 한편만 치우친 가르침과 이해만이 있지는 않은 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³⁾ 과거 삼위일체 교리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듯이, 현대에도 여러 가지 편향과 사변으로 왜곡되고, 혼잡해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를⁴⁾ 바로 이해하고,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B. 연구목적 및 방법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 벨끓은 성경은 한

3) 유동식 교수의 저서 '한국신학의 광맥'(서울 : 전광사) P. 30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역사참여의 신학, 성령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4)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삼위일체 신학을 주장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아는 인격적 앎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으로만 제한하였다.(스탠리 그렌츠·로저 올슨저,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IVP, 1997, P 116) 그리고 몰트만은 하나님 나라가 신위적 주체가, 다른 신위적 주체로 이양됨으로써 그 관계의 패턴이 바뀌어 가면서 발전되어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포함하여 논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일신론을 단호히 부인하면서 거의 삼신론적 이설로 빠지게 되었다.(Ibid P.297)

또한 유동식 교수의 단군신화에 대한 유비 등이 그 대표적 예다.

하나님이 삼위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이것은 분명히 특별계시의 교리로서 자연에는 계시되지 않은 교리이며, 인간이성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교리⁵⁾라고 말한다.

그래서 본 논문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 중심적이었던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삼위일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칼빈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한 신적 본질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각 위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삼위일체론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13장을 중심으로 칼빈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알아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를 정립하려고 한다.

5) 루이스 벨류. 기독교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6. P71.

6) 루이스 벨류도 그의 저서 기독교 교리사(서울: 성광문화사 P108)에서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논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초대 교회가 작성한대로 그 교리를 옹호하였다.'라고 칼빈의 삼위일체론 교리에 대한 서술을 시작하였다.

II. 칼빈의 삼위일체론 형성 이해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논하기 전에 칼빈이 어떻게 신학적인 사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전개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사랑과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돌려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⁷⁾ 칼빈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자였다.

그리고 성경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 성경 중심의 사고를 한 신학자였다.⁸⁾ 이 두 가지는 칼빈의 모든 신학에서 기초이자 기둥으로서 있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로 하겠다.

A. 「기독교강요」에서 삼위일체론의 위치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기독교 강요」(이하에서 기독교강요를 「강요」로 약술) I 권 13장에서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있다. 「강요」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7) John Calvin. 「기독교강요 上」. 신복윤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86. 이후부터는 강요의 영어인 Institutes의 약자인 Inst.로 기독교강요를 인용하겠다.

8) Inst., I,6,1.

은 오직 성령이 확증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강요」 I 권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독특한 삼위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내심으로 스스로 계시하신다고 결론 지으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것은 바로 성경의 주장하는 바를 한 마디로 말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그의 공허한 다변을 억제하게 될 것..... 성경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본체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성경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⁹⁾

이처럼 칼빈은 「강요」 I 권 13장에서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B. 삼위일체의 인식 근거

칼빈은 「강요」 I 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 칼빈은 불완전한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만 알려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힐라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

9) Inst., I, 13, 5.

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께 맡기게 될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하여 유일하며 참되신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¹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계시하시고 알려 주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출발도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부족한 인간의 능력 안에 자신을 알려 주시기 이전까지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 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시104:2)라고 외쳤다. 이 말은 우주 창조이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복장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후부터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영광의 훈장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시해 주셨다는 말과 같다고 하였다.¹²⁾ 즉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표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결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분이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에 대하여 증거 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참된 이해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¹³⁾ 칼빈은 하나님의 이해

10) Inst., I, 13, 21.

11) Inst., I, 11, 1.

12) Inst., I, 5, 1.

13) Inst. I, 6, 2.

하는 참된 발판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 하고자 하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인식의 근거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운 칼빈은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기준을 성경 말씀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한결같이 어리석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어떤 표준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의 확실한 규범을 성경에서 찾고,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체의 말을 여기에 순응시켜야 한다.¹⁴⁾

뛰어난 이성의 판단과 사변에 의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삼위일체 진리가 밝혀질 수 없다는 것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바를 깨달아 아는 방법뿐이며 성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논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다.

1. 그리스도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한

14) Inst., I, 13, 3.

다.

2.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와 성령께 돌렸다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인용한다.

Ⅲ. 칼빈의 삼위일체론

A. 삼위일체 본질의 이해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한하시며 영적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¹⁵⁾라는 말로 삼위일체론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무한(infinite)하시며, 영적(spiritual)이시라는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출발이 된다.

1. 하나님의 무한성(Infinity)

시간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불변성은 영원성이라 불리우고, 공간에 대한 불변성은 편재성이라 불리운다. 하나님의 무한성(Infinity)이란 이름은 이 둘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전 창조 가운데 내재하시지만 그것에 전혀 구속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루이스 벌콕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하나님의 자존성(self-existence), 불변성(immutability), 단순성(simplicity)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들 가운데 하나로써¹⁶⁾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여호와를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로다(시 145:3)'고 선포했다.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 사랑과 의, 주권과 능력과 거룩에서 무한하시다.¹⁷⁾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우

15) Inst., I, 13, 1.

16) 루이스 벌콕프. 「조직신학 상」. 권수경·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6년. p253.

17) Ibid.

리에게 두려움을 주어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함으로 유한한 인간의 지적 사고를 멈추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 주시는 그대로 알려고 해야 하며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발견하고 겸손한 지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영성(spirituality)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¹⁸⁾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요4:24)라고 말씀하셨다.¹⁹⁾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물이 불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과 도저히 통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음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비록 구약이 하나님을 영으로 정의하는 분명한 구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성은 어디에나 함의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무한히 높이 계시는 엘로힘(Elohim)이기도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 자기 존재 사실의 근거를 가지신다.²¹⁾ 그는 영원하시고²²⁾, 편재하시며²³⁾, 비교할 수 없으시고²⁴⁾, 볼 수 없으며²⁵⁾, 형

18) Inst., I, 13, 1.

19) 루이스 벌콕, op. cit., p260.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what God is)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 주는 의미 있는 진술이다. 주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영(a spirit)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라고 말한다.

20) John Calvin. 「칼빈 성경 주석: 요한복음」.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21) 출 3:13,14, 사 41:4 ; 44:6.

22) 신 32:40, 시 90:1 이하; 102:27.

23) 신 10:14, 시139:1 이하, 렘 23:23, 24.

상화 할 수 없으니²⁶⁾,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²⁷⁾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께서는 자의식적이며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시며 어떠한 육체성에 대해서도 귀속되지 않으신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양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신인동형론(神人同形論)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은 실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세속적이고 육적인 상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²⁸⁾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하며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이 아닌 모든 인간의 기초를 파한다고 칼빈은 주장하면서 그의 삼위일체론을 시작하고 있다.

B. 삼위일체의 정의와 용어 해석

칼빈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삼위일체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알기 쉬운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다양한 용어들의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

24) 사 40:18, 25; 46:5, 시89:6, 8.

25) 출 33:20, 23.

26) 출 20:4, 신 5:8.

27) 헤르만 바빙크.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256.

28) 루이스 벌콕. op. cit., p260.

1.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

칼빈은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명백하게 자신이 삼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²⁹⁾는 말로서 삼위일체의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는 것이며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오류에서 지켜 줄 간명하고도 알기 쉬운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상상”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삼위로 분할된다”는 두 가지 잘못된 삼위일체를 생각지도 못하게 한다. 칼빈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을 반대하여 삼위일체론자들을 마치 무신론자인 것처럼 공격했던 세르베투스의 비난이 참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³⁰⁾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신적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다. 세 분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은 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증거 한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하나님으로 알려지신 삼위가 존재하신다³¹⁾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칼빈이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할 할 수 없다”³²⁾고 단호하게 주장

29) Inst., I, 13, 2.

30) Inst., I, 13, 2.

31) Inst., I, 13, 16.

그에 대한 원문 *in Dei essentia residere ters personas Deus simplex et individua sit essentia Dei*

32) Inst., I, 13, 2.

그에 대한 원문 *nam quum simplex et individua sit essentia Dei*

한다. 칼빈의 이러한 주장은 니케아 신조와 아다나시우스에 의해 정의 내려진 정통적인 교리였다.³³⁾ 그러나 칼빈의 최대의 적이었던 세르베투스(Severus)는 삼위가 한 본질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셋으로 나누어져 하나님의 유일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셋은 단순히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각위란 신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외부적 어떤 관념이라는 것” 곧 신이 우리를 위하여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나타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³⁴⁾ 그래서 오히려 세르베투스는 칼빈을 삼신론자로 몰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정통적인 삼위일체의 정의를 따르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삼위일체론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것은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를 한 마디로 말하는 것이 될 것이며... 성경이 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본체가 하나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성경이 한 본질 안에 셋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³⁵⁾

이러한 분명한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성경적인 정의는 5세기 말엽의 아다나시우스 신조(Symbolum Athanasianum)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립된 삼위일체론을 인정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33) 차영배. 「개혁교의학-삼위일체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p128-139.

34) Ibid., p213.

35) Inst., I, 13, 5.

공교회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니 곧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한 하나님과 일체 안의 삼위를 경배한다.

격위(格位)들은 혼동하지 않고 본질(本質)을 나누지도 않는다.

이는 성부의 한 격위(格位)가 계시고, 성자의 다른 격위(格位)가 계시며, 성령의 또 다른 격위(格位)가 계신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 모두 하나이다.

그 영광이 동등이며 그 존귀가 함께 영원하다.

성부가 바로 이 같으며, 성자가 이와 같고, 성령이 또한 이와 같다.

성부가 지음 받지 아니했고, 성자가 지음 받지 아니했고, 성령이 또한 지음받지 아니했다.

(중략)

이 삼위 안에 누구도 앞서지 않고 뒤지지도 않는다.

그 누구도 보다 크거나 낮은 분이 안 계신다.

그러나 전삼위가 함께 영원하며, 같이 동등이다.

따라서 이미 고백한 것 같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고백한다.

삼위 안의 일체, 일체 안의 삼위께서 경배를 받을찌니라³⁶⁾

이와 같이 유일 절대하신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있어서 단일성을 강조하며, 삼위 각위의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을 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고 있다.

2. 삼위일체에 대한 정식 호칭과 용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신학 용어들은 회랍교부와 라틴

36) 차영배. op. cit., p203. 이 밖에 그리스도의 양성과 구속 및 최후 심판과 영생에 관한 고백이 뒤따른다.

교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다.

동방교회 회랍교부들은 삼위일체에 대해 ‘한 실체와 세 가지의 존재 모습(*μία οὐχιατρεις ὑποστάσεις*)’ 라고 했으며, 서방교회 라틴교부들은 ‘한 실체, 세 위격(*una substantia tres personae*)’라고 했다. 그러나 위(位)라는 말이 사용된 것과 하나님 안에 세 “프로소파”(prosopa, 얼굴)가 존재한다고 가르친 것으로 보아, 칼빈은 회랍의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이 비록 용어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지만, 위(位)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³⁷⁾고 하였다. 그러면 전통적인 삼위일체에 사용된 용어들에 대해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자.

a. “삼위일체”와 “위(位, person)”

칼빈은 ‘위’라는 말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라 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세르베투스와 같은 자들은 그 말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우리의 확신을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다고³⁸⁾ 하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용어가 새로운 것이라 하여 비난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진리의 빛을 무가치하게 만든 자로 정죄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진리를 쉽고 명백하게 하는 그 용어를 그는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삼위 하나님을 명백하게 증거하며 보증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 용어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으며 오히려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것이다

37) Inst., I, 13, 2.

38) Inst., I, 13, 3.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쉽고 명백하게 해 주는 용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위'를 나타내는 용어인 헬라이 휘포스타시스와 라틴어 페르소나의 의미를 알아본다.

(1) 휘포스타시스(hypostasis)

휘포스타시스는 철학적 용어로서 '밑에 서 있는 것, 또는 보이는 것 뒤에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어떤 행동의 결과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시아라는 말과 동일어로 사용되었고,³⁹⁾ 신약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구절 속에서 본체로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니케아 회의 때까지 계속되었다. 심지어 아타나시우스는 두 말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의 비판자들에 대한 변론의 한 구절에, '휘포스타시스는 우시아다. 그 두 말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 후에 작성된 대다수의 고백서는 '우시아'와 '휘포스타시스'를 함께 사용하거나 반드시 다른 한쪽에 언급하고 있다.

'휘포스타시스'가 '우시아'와 분리되어 삼위일체론에 사용된 것은 362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주관했던 알렉산드리아 대회였다. 그들은 니케아 신조의 기본신앙에 따르면서, 세 우시아가 아니라 세 휘포스타시스라고 표현하였다. 그 후 뎀분의 교부들은 휘포스타시스를 하나님의 존재의 특별한 양태 또는 각 위의 존재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⁴⁰⁾

칼빈은 히 1:3에⁴¹⁾ 대한 주석에서 휘포스타시스의 의미를 다음과 같

39) 이종성, 「삼위일체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년. p292.

40) Ibid. p293

41) ο)" wjn ajpauvgasma th'" dovxh" kai; carakth;r th'" uJpost te ta; pavnta tw'/ rJhvmati th'" dunavmew" auj'tou', (di!)

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가 본체(substance)라고 번역한 휘포스타시스(**uJpostavsi**)”라는 말은 아버지의 존재(esse) 또는 본질(essence)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 인격(person)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은 완전히 하나이고, 또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본래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도 나타나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도 또한 안다고 하는 것이 진실하고 적절한 표현이 된다. 정통적 교부들도 또한 본체는 하나님 안에 삼위로 존재하고 우시아(본질)는 오직 하나로 존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⁴²⁾

칼빈은 이처럼 전통적인 휘포스타시스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위격’ 개념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휘포스타시스와 스투스탄티아(substantin)의 차이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원적인 의미에 의하면 휘포스타시스는 우시아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둘 모두를 스투스탄티아라고 번역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휘포스타시스를 헬라 동방 교회에서는 세 위격을 의미하는 말(페르소나)로 이해하였고, 서방 라틴교회에서는 일체를 의미하는 스투스탄티아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이 일종의 언어의 혼란이었다.⁴³⁾ 이러한 용어상의 혼란에 의해 동서방교회 간에 긴장이 생겨났고, 동방교회에서 볼 때 서방교회는 일체가 아닌 삼체의 삼신론을 가르친다고 오해하였다.⁴⁴⁾

이에 대해 칼빈은 동방 교회의 이해를 따르고 있다. 칼빈은 힐라리우스의 견해에 의해 스투스탄티아라는 라틴어를 ‘위격’(persons)이라는 말과

(**poihsavmeno**) **tw'n aJmartiw'n ((poihsavmeno)) (hJmw'n,) e megalwsuvnh" ejn uJyhloi"**,

42) 존 칼빈. 칼빈 성경주석:히브리서.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41

43) 이종성. op. cit., p295

44) Ibid.

동일어로 해석하고 있다.⁴⁵⁾

그래서 칼빈은 히 1:3의 '본체의 형상'에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본질(essentia)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을 조잡하고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시되 부분적으로나 파생적으로가 아니고 아주 완전하게 포함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일이다.⁴⁶⁾ 그러나 성부는 비록 자신의 고유한 특성에 있어서는 구별되었지만, 성자 안에서 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가 성자 안에서 자신의 본체를 나타내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것은 같은 구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 1:3)이라는 말씀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사도의 이같은 말을 통하여, 성자 안에 있는 바로 그 본체가 성부 안에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자에게도 본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자를 성부와 구별시켜 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⁴⁷⁾

(2) 페르소나(persona)

회랍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페르소나란 용어로 삼위일체의 교리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대교회 당시 성서 밖에서 이해된 '페르소나'는 첫째로, 무대에서 배우가 사용하던 가면이 대변하는 극 중 인물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로 그것은 조건, 신분, 기능을 의미했다.⁴⁸⁾ 신약성경에서는 '페르소나'에 해당되는 '프로소폰'이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가 터툴리아누스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그 후로 페르소나는 인격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로

45) 존 칼빈. op. cit.

46) Inst., I, 13, 2.

47) Inst. I. 13. 2.

48) Ibid. p296

이해되었다.⁴⁹⁾

칼빈은 휘포스타시스를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면서⁵⁰⁾ “실제”(subsistence)라는 말과 “실체”(substance)라는 말로 번역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⁵¹⁾ 위(位)라는 말은 라틴 교부들도 사용하였는데, 아마 이 교리에 동의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칼빈은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한 “실재”(subsiste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재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하여 저들과 구별된다⁵²⁾고 하였다.

희랍의 교부들이나 라틴 교부들은 비록 용어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b. 본질(essence)

삼위일체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성 때문에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초대 교회에서나 현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다.

칼빈은 특히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당시의 세르베투스의 주장은 사악한 뱀들의 교리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교회사에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칼빈은 아리우스를 대표로 거론하고 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피조성을 주장하면서 시초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⁵³⁾

49) Ibid. p297

50) inst., I, 13, 2. “..사도의 증거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세 본체가 있는 것이다. 라틴 교부들은 이 말을 “위(位person)”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51) Inst., I, 13, 2.

52) Inst., I, 13, 6.

53) 차영배. op. cit., p41

그러면 본질을 의미하는 헬라어 우시아와 라틴어 슁스탄티아에 대해 알아본다.

(1) 우시아(usia)

우시아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근원적인 존재 혹은 힘을 말한다. 플라톤은 그러한 근원적인 존재를 이데아라고 불렀다.⁵⁴⁾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시아를 실지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범주론에서 모든 실제에는 실체와 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속성에 속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을 제 1 우시아라고 부르고, 구체적인 것에 공통된 실체를 제 2 우시아라고 불렀다.⁵⁵⁾

초대교부들이 그리스도의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와의 관계를 말할 때, 처음에는 '우시아'를 플라톤적인 뜻으로 사용했으나, 4세기 중반부터는 (362년 알렉산드리아 대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뜻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제 2 우시아를 전체적 실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개별적이며 속성적인 것에 대해 '휘포스타시스'라는 새로운 낱말을 사용하게 되었다.⁵⁶⁾

칼빈은 우시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간결한 말을 하면서, 동서방교회 간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2) 슁스탄티아(substantia)

서방교회의 호칭은 '우나 슁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에'다. 서방교회

54) 이종성. op. cit., p291.

55) Ibid.

56) Ibid.

는 동방교회와는 다른 두 낱말을 사용하였고, 동방교회의 우시아와 상응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 스킴스탄티아는 우시아보다는 휘포스타시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스킴스탄티아는 본질보다는 실체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동일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서방교회의 스킴스탄티아라는 용어를 이해하며 허용한다.

라틴 교부들이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번역하고자 하였을 때, 그들은 성부와 성자의 실체는 하나라는 것을 가리키는 “동일본질”(consubstantial)이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리하여 “실체”(substance)라는 말을 “본질”(essence)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였다.⁵⁷⁾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칼빈은 정통 교부들의 삼위일체론에 대해 사용한 용어들을 통해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정확한 정의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동서방 교회의 용어상의 차이에서 오는 혼돈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만 있다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잊어도 좋다고 말한다.

실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 이거나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 또는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하는 이 한 점에 일치하게 된다면, 이 용어들은 잊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실로 나는 단순한 용어 때문에 완강하게 싸울 정도로 까다로운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건하게 이 문제를 다룬 고대의 교부들도 서로가 일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 개인적으로도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57) Inst., I, 13, 5.

칼빈에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신앙이 표현 방법에 따르는 용어의 불일치 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용어가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면 용어의 차이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c. 위(person)와 본질(essence)의 관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 본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하지만 분명한 설명을 한다.

칼빈은 ‘위’(person)는 하나님의 한 본질(essence)에 있어서의 한 실재(subsiste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실재는 다른 실재들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해 서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즉 내가 말하는 “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의 한 “실재”(subsiste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재와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하여 저들과 구별된다. 우리가 의미하는 실재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는 다른 무엇을 뜻하는 말이다. 만일 “말씀”이 다만 하나님일 뿐 아무런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요1:1)라고 한 요한의 말은 부당한 말이 될 것이다. 그 즉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고 첨가하였는데,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본질의 단일성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성부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재의 관념이 명백해진다. 즉 실재는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는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특수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요한복음 1:1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같은 해석

58) Ibid.

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보다 높이 계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계시며 모든 시대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와 다른 실체(hypostasis)를 안겨준다. 복음서 저자가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거나 하나님의 존전에 계셨다고 했다면 그것은 불합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그의 확실한 실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들이 아버지와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벨리우스의 오류를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 초대교회 저자들은 당시의 이교도들의 모호한 궤변에 대항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참되고 순수한 진리를 변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만들어내야만 했다는 점에서 그들을 가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의 단순한 하나님의 본질(essence) 안에 세 분의 인격(persons) 또는 세 분의 실체(hypostasis)가 계신다고 표현했다.⁵⁹⁾

이처럼 칼빈은 실재와 본질의 차이를 명백하게 설명한다. 실재는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특수한 표지를 가지고 있어 세 실체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용어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이제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논증에서 더욱 더 확실해한다.

C. 성자의 영원한 신성과 삼위일체

59) John Calvin. 「성경주석: 요한복음」,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간행사. 1980. p 24-25.

칼빈의 삼위일체 논증에 대한 방법에서 언급했듯이,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의 인용과 성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들을 성자와 성령계도 돌려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고 삼위일체론을 확립해 나간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증에 있어서는 말씀의 신격과 영원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와 신구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격을 증명한다.

1.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

a. 말씀의 선재(pre-existence)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재에 있다. 이는 성경이 증거해 주는 바이며,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진, 하나님 바깥쪽에서부터 나온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로만 성상하는 것과 또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증거한 대로, 사도들(벧전1:10-11)과 하늘나라의 교리를 위해 일한 후대의 모든 사역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대의 예언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까닭에,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⁶⁰⁾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선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으로 나오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라고 말씀하여

자신의 선재와 영원성을 나타내셨다. 칼빈은 이 말씀을 들어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다.⁶¹⁾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창조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양자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만물의 원인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요1:1-3). 요한은 이 말씀에 견고하고 영원하신 본질을 부여하고 특수한 것을 귀속시켰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명백히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본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말씀의 선재는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b. 말씀이신 창조주의 신성

60) Inst., I, 13, 7.

61) Inst., I, 13, 8.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선재하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참여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다.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이 말씀의 영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고 있으며, 우주 창조 기사에서 이 말씀을 매개자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는(창1장) 모세의 증거와 이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 즉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셨다⁶²⁾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또 솔로몬의 잠언에서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온 지혜가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할하였다⁶³⁾고 말씀을 들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주로서 사역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의지의 일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천박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자신의 계획과 심지어는 한층 더 은밀한 것까지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결론을 칼빈은 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여금 창조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양자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⁶⁴⁾

62) 히 1:2-3 :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63) 잠 8:22 :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64) Inst., I, 13, 7.

칼빈은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 사역에 참여하심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이로서 창조 사역을 통해 말씀의 신격이 증명된다. 그리고 칼빈은 요 1:1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고⁶⁵⁾ 하였다.

2.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곧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소개하고 있다. 그 증거는 풍부한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인용하고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a. 메시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시45:6)

칼빈은 시 45:6-7에 나오는 메시아의 시편을 인용하여 이 시편의 노래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1:8-9에서 성자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것으로 참되고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의미한다⁶⁶⁾고 해석했다. 특히 본문에 나

65) Ibid.

66) John Calvin. 「성경주석: 시편」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351.

오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천사나 최고의 권력자에게 적용시켜서는 안되며, 영원한 보좌가 세워진다는 구절에 의해 그것은 다만 하나님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통치자로도 불리는 분에게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같은 시편 해석을 통해 성자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b. 전능하신 아버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칼빈은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적인 표지인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포하였다⁶⁷⁾고 해석하여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확하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고쳐 읽으므로, 성자를 다만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 명백한 표지들로 그리스도를 장식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일 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칼빈은 주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며 그 분 안에 신적인 위험이 있으시다⁶⁸⁾고 말하고 있다.

67) Inst., I, 13, 9.

68) John Calvin. 「성경주석: 이사야」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315.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사야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명백한 신성은 우리의 신앙을 확립시켜 나간다고 말한다.

c. 구원자이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렘 23:5-6)

칼빈은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그분에게는 인간보다 탁월한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동일한 본질이며 영광이며 영원이며 신성하기에 여호와라고 불리우는 것이다⁶⁹⁾고 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존재로 오셔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를 잘 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는 단지 구원의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

69) John Calvin. 「성경주석: 예레미야」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160.

니었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⁷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명칭들은 다만 칭호에 지나지 않으며 입에 올리기에만 황송한 “여호와”라는 명칭만이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실질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성자만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고 선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⁷¹⁾

d.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심

사사기 6-7장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다. 칼빈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제단을 쌓은 것은 그분이 여호와이셨기 때문이지 천사에게 제물을 드리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²⁾

사사기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는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삿 13:22)고 외친다. 칼빈은 이 본문의 사실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이름을 물을 때 그가 “내 이름은 기묘니라”고 대답하여 자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말씀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70) Ibid.

71) Inst., I, 13, 9.

72) Inst., I, 13, 10.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족장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은 것은 천사였다고 주장한 세르베투스⁷³⁾의 불신앙은 더욱 더 가증하다 하겠다 그러나 교회의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올바르게 지혜롭게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이를 테면 중재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⁷³⁾

중보자이며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보다 인간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시기 위해서 천사라는 칭호로 불리워졌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e. 만군의 여호와

(1) 호세아 12:5

저는 만군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호 12:5).

칼빈은 호세아 본문과 창세기 32장을 인용하여 야곱이 압박 강가에서 함께 씨름을 한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고 말한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창 32:20)는 야곱의 고백을 해석하여 야곱이 만난 천사는 “창조된 천사가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⁷⁴⁾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야곱이 씨름한 천가는 그리스도이셨다

73) Ibid.

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천사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선포된다. 이로서 야곱이 만난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이셨던 것이다.

(2) 스가랴 2장 3, 9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슌 2:3)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슌2:9)

칼빈은 천사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스가랴 본문을 인용하여 찬사를 파송하는 천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여 그 천사가 지상에 대한 권능을 가지신 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f.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사 25:9)

칼빈은 본문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이는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분이

74) Inst., I, 13, 10.

바로 하나님이사라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도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칭호를 붙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⁷⁵⁾고 말한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실재적인 영원성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귀속함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부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확고해 진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사라는 증거는 구원 사역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신적 본질이 동일한 것으로 증명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구약성경의 논증이 된다.

g. 성전에 임하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 3:1)

칼빈은 본문에서 주께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여,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성전은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한 주장에 미루어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장한다⁷⁶⁾고 볼 수 있다.

칼빈은 본문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중보자요 천사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현현이 곧 임박했다⁷⁷⁾고 해석한다.

75) John Calvin. 「성경주석 : 이사야」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 244.

76) Inst., I, 13, 10.

77) John Calvin. 「성경주석 : 말라기」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사로, 아니면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3. 신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성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구약성경 전체에서 잘 증거한 다음 계속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것 가운데 일부의 증거를 잘 설명하고 있다. 사도들은 이미 육신을 입으시고 증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칼빈이 제시하고자 하는 증명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신성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될 것이다. 칼빈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적 행위를 들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한다.

a.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가 신약성경에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논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택하여 진술한다. 특히 칼빈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해 예언된 내용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거나 성취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증한다.

(1) 이사야 8장 14절 - 로마서 9장 32-33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서교재간행사. 1980. p 420.

올무가 되시리니(사 8장 14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
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
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롬 9장 32-33절)

칼빈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던가, 혹은 어느 날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사도
의 교훈을 인용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부딪치는 돌이 되었다고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 이사야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서 만군의 여
호와가 곧 그리스도시라는 결론을 내린다.

(2) 로마서 14장 10-11절 - 이사야 45장 23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
기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
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롬 14:10-11)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
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
라 하였노나(사 45:23)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스
도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므로 여기에서 그가

바로 그 영광이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⁷⁸⁾고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3) 에베소서 4장 8절 - 시편 68편 1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엡 4:8)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시 68:18)

칼빈은 에베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 시편의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위임의 성격이 들어 있고, 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사건이 자신을 거쳐서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한 점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인자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⁷⁹⁾고 해석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을 때, 주님께서 위로 오르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신 후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정의 순간을 맞이한 것은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하신 때였다고 칼빈은 말한다. 바울은 이 인용 구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 그 의미를 파악해 냈다고 하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실제로 계속됨을 바라보았지만, 무엇보다도 기억할 만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78) Inst., I, 13, 11.

79) John Calvin. 「성경주석 : 에베소서」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332.

교회의 영원한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셨다는 것이다⁸⁰)고 주석하였다. 오히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다윗이 옛날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열거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격을 강조한다.

(4) 요한복음 12장 41절 - 이사야서 6장 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요 12:41)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사 6:1)

칼빈은 요한이 이사야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된 것은 성자의 영광이라고 증거한 것⁸¹)을 인용하고 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두 성경구절의 내용을 따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5) 히브리서 1장 10절 - 시편 102편 25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히 1:10)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

80) Ibid. p 333.

81) Inst., I, 13, 11.

신 바나이다(시 102:25)

칼빈은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성자에게 드린 하나님의 명칭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임을 말하면서,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자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시편에서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온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의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란 헛된 것⁸²⁾이기 때문에 시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며, 그리스도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존재는 영원하시며 어떠한 변화도 없으신 피조물과는 다른 분⁸³⁾이시다. 이처럼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동일하신 분으로 해석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6) 히브리서 1장 6절 - 시편 96편 7절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 1:6)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시 96:7)

칼빈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명칭들을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은 결코 남용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위엄을 돌리는 것은 주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⁸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격

82) John Calvin. 「성경주석 : 히브리서」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50-51.

83) Ibid.

을 가지신 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사들이 경배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본문으로 칼빈은 사도 바울이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롬 9:5)이라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므로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스도께 돌릴 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정짓는다. 이처럼 칼빈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돌려질 경배와 찬양을 그리스도께도 돌려 그리스도의 참 신성을 증거한다.

(7) 요한일서 5장 20절 - 신명기 6장 4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과 그분은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마땅히 받아야 할 바로 그 분이신 것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빌 2:6-7)라고 증거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말하면서, 더불어 요한의 본문 말씀을 들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이방 신으로 오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는 증거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으로 불리셔야 할 것⁸⁴⁾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증거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도마는 그리스도에 대해 “나의 주시며

84) Inst., I, 13, 11.

85) Inst., I, 13, 11.

나의 하나님”(요 20:28)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계시된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칼빈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셨다는 말씀을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격을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혹은 성취될 것으로 혹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호함이 없이 성경을 통해 논증했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성부와 동질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은 삼위일체론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다.

b.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본 신성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판단한다면, 한층 더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다⁸⁶⁾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최대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구속 사업 이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알아본다.

(1) 성부와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르르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요 5:17-18)

86) Inst., I, 13, 12.

칼빈은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일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나타낸 증거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에 둔감했던 유대인들조차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일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능을 행사하신다고 느꼈던 것이다.⁸⁷⁾ 그리스도께서는 인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셨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같이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인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2)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3)

우주를 섭리하시며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자신의 대권으로 만물을 지배하신 것들은 전적으로 창조주에 속하는 일들인데, 이를 사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를 따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한다.

(3)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87) Inst., I, 13, 12.

아니하리라(사 43:25)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도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마 9:6)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성부와 함께 세계 통치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사역을 수행하심을 열거하고 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예수께서는 죄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는 이 말씀에 따라 이 권세는 자기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주장하셨으며, 이적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셨다⁸⁸⁾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사함을 위해 친히 그 일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죄권을 소유하셨다고 칼빈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 권능은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결코 옮겨질 수 없는 것이다⁸⁹⁾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다른 피조물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되고 있다고 논증한다.

(4) 전지(全知)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마 9:4)

88) Ibid.

89) Ibid.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 2:25)

칼빈은 본문 말씀을 증거로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이 권능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다⁹⁰⁾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였다.

c. 그리스도의 이적으로 본 신성

칼빈은 성경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하게 증거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행하신 이적 행위를 통하여 보다 명백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1)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그리스도가 베푸신 이적이 똑같거나 그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준데 비하면, 그리스도의 이적은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셨다는 점에서, 사도의 이적 행함과 그리스도의 이적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⁹¹⁾고 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인간에게는 어떠한 이적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인간은 오직 모든 이적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

90) Ibid.

91) Inst., I, 13, 13.

는 이적을 받아 나누어주거나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나누어주신 이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이적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예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도 했지만(요 11:41⁹²)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었다고 주장한다.⁹³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이적의 권능을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권능으로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2) 이적의 수여자이신 그리스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 3:15)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막 6:7)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셨다는 분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이적 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는 이적의 참된 창시자이시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92)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93) Inst., I, 13, 13.

(3) 이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요 14:11)

그리스도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수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고 앓은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하게 증거해 준다⁹⁴⁾고 확정짓고 있다.

d.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신성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마지막 증거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의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 소유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⁹⁵⁾

칼빈은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라고 하여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으며 의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소유하신다⁹⁶⁾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면(마 19:17⁹⁷⁾)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일 수 있는가라고 반

94) Ibid.

95) Ibid.

96) Ibid.

97) 마 19 :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문하면서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과 의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다.⁹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칼빈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욘2:32)라고 예언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치된 사실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이다”⁹⁹⁾라고 확증한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하게 논증한다.

e. 기도와 그리스도의 신성

칼빈은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는 역시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⁰⁾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엘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욘 2:32)라고 말하였고, 다른 예언자는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속하는 특별한 것인 기도를 그리스도께도 함께 드리게 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연스럽게 증거한다.¹⁰¹⁾ 그리고 신성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육신으로 거하신다는 말씀¹⁰²⁾을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사도는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98) Inst., I, 13, 13.

99) Ibid.

100) Ibid.

101) 이에 대한 성경의 실례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행 7:59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행 9:13-14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교리도 고린도인에게 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였다.¹⁰³⁾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예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 서신 서두의 인사말에 나오는 기원을 들고 있다. 바울의 여러 서신 첫머리에 있는 인사말을 보면, 성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성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롬 1:7; 고전 1:3; 고후 1:2; 갈1:3).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천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성자의 중재로 온다는 것이 바로 그 모든 은사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¹⁰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축복과 은사의 근원이 되신다는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가 들어 있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적 동질성을 찾을 수 있다. 칼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의 인사말에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는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를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증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데 있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선재하셨다는 것과 말씀이 바로 창조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열거하여 증거하며,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언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그외에도 하나님께 하시는 사역을 그리

102) 골 2: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3) 고전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104) Inst., I, 13, 13.

스도께서 행하신 동일한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칼빈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방법은 너무나 명백하고 탁월하다. 이러한 칼빈의 그리스도의 신성 증거 방법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동질성을 증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D. 성령의 신성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거 한 방식과 동일하게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보다는 간략하게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무게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신적 사역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 칼빈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해 나간다.

1.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의 사역

칼빈은 성령의 다양한 신적 사역들, 즉 창조사역, 선지자들의 파송, 만물의 보존과 성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들을 통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a. 성령의 신성을 나타내는 창조 사역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2)

칼빈은 성령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완전한 혼돈 덩어리를 고이

보존하시고 창조를 준비하셨으며,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 104:30)는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
령께서 직접 창조 사역에 참여 하셨다¹⁰⁵⁾고 주장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
거한다.

아무리 무질서한 혼동 덩어리일지라도 성령의 은밀하신 권능에 의해
얼마 동안 지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만이 가지시는 것으로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셨던 것이다.

그는 우주의 창조 사역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참여하셨던 것처럼, 마
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다윗의 시를 통해 칼빈은 증
거한다. 이처럼 칼빈은 성령께서 창세 이전부터 혼돈의 덩어리를 보존하
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b. 성령의 선지자 파송과 성령의 신성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사 48:16)

칼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해하면서, 성령이 본체에 있어서 하
나님과 하나이시며, 선지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 최고의 권능을 성령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신다¹⁰⁶⁾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하나님
과 본체에 있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
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본체 안에 삼위가 계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성령’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모든 선지자의 유일한 교사요, 인
도자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말한 뒤에 곧이어 “또 역사는 여

105) John Calvin. 「성경주석 : 창세기」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40

106) Inst., I, 13, 14.

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전 12:6)”라고 말한다. 이 구절도 역시 성령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거다¹⁰⁷⁾고 말한다. 칼빈은 거듭 그의 이사야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성령의 신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증거한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군왕의 권위로만 대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코 하나님이신 것이다.¹⁰⁸⁾

이사야가 자신을 파송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라고 고백하여 자신의 선지자직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동시에 성령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칼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할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의 사역에 성부하나님과 공동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에 신적 위엄이 찬란하게 빛난다고 말한다.

c. 성령의 만물의 보존과 신성

칼빈은 성령이 온 피조물 위에 편재해 계신 초월자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만물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성장케 하시며 소생시키신다¹⁰⁹⁾고 하였다. 또한 그분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확실히 하나님이신

107) John Calvin. 「성경주석 : 이사야」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 486-487.

108) Ibid. p. 487.

109) Inst., I, 13, 14.

것이다. 칼빈은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나타나며, 이로서 곧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d. 성령의 구원 사역과 신성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런데 칼빈은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께서는 빌어 온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창시자이시며, 중생 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¹¹⁰⁾고 주장한다.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칼빈이 증거하는 성령의 신성이다.

칼빈은 중생 뿐만 아니라 구원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와 성화등 모든 선한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온다고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칼빈은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실재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강조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¹¹¹⁾ 성령께서 천상의 모든 은사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며, 이러한 사역을 통해 성령의 신성이 증거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령의 다양한 신적 사역을 통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논증한다.

2. 성령의 신성에 대한 증거

칼빈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어 보다 명백하게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110) Ibid.

111) 고전 12:10

a. 성전의 개념 일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6-17)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19)

칼빈은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²⁾ 하나님의 백성의 몸이 성전이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칼빈은 성령의 거룩한 신성이 분명하게 입증된다고 강조한다. 만일 하나님이 피조적인 존재이거나, 혹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엇에 불과하다면,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이는 곧 성령의 성전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증거와 이에 대한 칼빈의 해석으로 인해, 성령의 신성을 분명하게 논증해 준다.

b. 성령의 신성에 대한 베드로의 증거

112) John Calvin. 「성경주석 : 고린도전서」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 12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
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칼빈은 본문의 주석에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
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속이는 자는 하
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성경의 증거가 성령의 신성을
확실하게 증거 해 준다고 말한다. 성령을 속인 자는 하나님을 속인 자라
는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
이다.

c. 성령의 신성에 대한 바울의 증거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
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
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행 :
28:25-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 :
9)

칼빈은 두 본문에서 비교되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한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하게 표현 했다는데서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d. 예언의 창시자로서 성령의 신성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 : 21).

칼빈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말이 만군의 주의 말이라고 변함없이 말하였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를 성령의 말씀이라고 한 본문을 들어 성령의 신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탁월한 의미에서 모든 예언의 저자이신 성령이야말로 참되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¹¹³⁾고 주장한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예언의 창시자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e. 성령의 신성에 대한 이사야의 증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긴을 근심케 하였으므로(사 63 : 10).

칼빈은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들의 완고함을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말로서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하신 신적 존재로 표현하여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

113) Inst., I, 13, 15.

고 있다.

f. 성령의 신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 : 32)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막 3 : 29)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눅 12 : 10)

이 본문을 통해 칼빈은 성령의 신적 위엄이 공개적으로 선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위엄은 훼손 당하지 않으며 결코 범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위엄이며 그 위엄을 범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¹¹⁴⁾이라고 칼빈은 강조한다. 칼빈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 대해 성령을 훼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용서를 구하거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¹¹⁵⁾ 이와 같이 칼빈은 성령의 신성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시 하여 성령의 신격을 탁월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은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도 성자의 신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 이상을 증거하지 않는

114) Ibid.

115) John Calvin, 「성경주석 : 마태복음」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485.

다. 특히 성령의 창조 사역과 선지자 파송 그리고 만물의 보존과 성장 그리고 구원사역을 통해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 칼빈은 보다 확증적으로 성령의 신적 호칭 즉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령의 신성을 분명하게 결정짓는다.

E.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위성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해 빈틈이 없는 성경적인 논증을 한 다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존재의 특성에 대해 말한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먼저 증거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의 존재 양식을 통해 계신다는 사실과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며 관계는 어떠한가를 증거한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유일하신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는 삼위일체론의 정의를 확인하고 있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 : 19)

칼빈은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유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말한 에베소서 본문을 인용하여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이며 또한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¹¹⁶⁾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116) Inst., I, 13, 16.

세례를 통하여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종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신 분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위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 즉 주님께서서는 신앙의 완전한 빛이 현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에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명백하게 자신을 나타나 보이시는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칼빈은 신앙은 다양한 대상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¹¹⁷⁾이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아가 “세례는 신앙의 성례”이며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증거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한 분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앙에 의한 하나의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한 본질 안에 계시며 결코 본질에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성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라고 증거한 다음 성경이 성부와 성자, 성자와 성령을 구별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a. 성부와 성자의 구별

칼빈은 선지자의 예언, 예수님 자신의 말씀, 창조 사역 그리고 성부

117) Ibid.

와 성자 과송들을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증거한다.

(1) 스가라의 예언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의 구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면 양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슌 13:7)

칼빈은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하면서 사역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시되는 이 하나님의 명칭들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 “목자”를 구별한다. 칼빈은 그의 스가라서 주석에서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¹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달아났을 때 이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의 제자들은 모든 흩어졌다. 칼빈은 이러한 사실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의 구별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으로 칼빈은 “말씀이 성부와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으며 따라서 말씀이 성부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성부와 더불어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없었을 것”¹¹⁹⁾이라고 주장한다.

(2) 예수의 증거에 따른 성부와 성자의 구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요 5:32)

118) John Calvin. 「성경주석 : 스가라」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p 448.

119) Inst., I, 13, 17.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요8:16)

칼빈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신다고 증거한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구별되시는 따로 계신 성부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성부는 함께 계시는 성자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칼빈의 본문을 통한 증거이다.

(3) 창조 사역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의 구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칼빈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성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자신과 말씀(성자)과 구별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¹²⁰⁾고 증거하여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증거한다. 그래서 칼빈은 요한복음 본문에 대해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에 어울리는 선언을 하고 있다. 바울은 한 마디로

120) Inst., I, 13, 17.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롬11 : 36)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아버지와 비교될 때는 그는 보통 이 기준이 의해서 구별되고 있다.

칼빈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이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성부와는 구별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4) 성부와 성자 파송을 통한 구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 었고(요 17:18).

칼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바로 성자이심¹²¹⁾을 증거한다. 또한 성부는 죽지도 아니하시고, 부활도 아니하셨고 다만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성부와 성자의 명백한 구별을 증거하고 있다. 성자는 성육신하신 이전에는 독생하신 하나님¹²²⁾이셨던 것이 분명하며, 성육신을 통하여 지상에 오신 분이셨다. 이와 같이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는 독생자로서 보내시는 아버지와 구별되셨다.

b. 성부와 성령의 구별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

121) Ibid.

122) 요 1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 : 26)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성을 말하면서 성자와 성부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만 성부와 성령의 구별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성부로부터 성령이 파송하신다는 본문만을 제시하면서 성령이 성부와 구별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¹²³⁾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구별되시는 분이시라고 칼빈은 말한다.

c. 성자와 성령의 구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26)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이 성자가 아닌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다. 이렇게 간결한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 칼빈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이지만 서로 구별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d.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의 구별

칼빈은 삼위 하나님 각 위의 구별을 논증하고 난 후에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3) 요 14 :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곧 성부는 일의 시초가 되시고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시며 만물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님께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의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¹²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며, 그 다음으로 성부로부터 나오는 지혜이신 성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그 지혜의 작정을 수행하시는 능력의 성령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자는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순서가 있다고 하였다.

F.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논증의 마지막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신적 본질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성

칼빈은 삼위 하나님의 상호간 관계성에 대한 전제로서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논증을 다시 말한다. 특히 칼빈은 성령을 중심으로 하여 신성을 증거한다.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똑같은 영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준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적 성품이 각 실재 안에서 이

124) Inst., I, 13, 18.

해되며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⁵⁾

칼빈은 이러한 논리에 의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칭호는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유일하신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칼빈은 삼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신적 본질이 셋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격에 있어서 즉 삼위의 관계의 표현에 있어서 셋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 칼빈은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따르며 그의 진술에 만족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에는 성부라고 불린다. 성자에 대하여 성부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며, 성부에 대하여 성자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한 분이시다.¹²⁶⁾

어거스틴의 이 논리를 따라 성령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는 성령이라고 불린다. 성자나 성부에 대하여 성령이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성령이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린 분과는 동일한 분

125) Inst., I, 13, 19.

126) Ibid

이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진술은 삼위 하나님 각위의 내재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각 위의 상호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칼빈도 공허한 사변에서 헤매지 말고 어거스틴의 말에 만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와 일체성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논증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의 즉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에는 세 인격 또는 세 실체가 존재한다¹²⁷⁾”는 사실을 반복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상호 관계에 의한 순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에 다시 증거한다. 칼빈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논증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갖도록 하고 있다.

a.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정한 순서

칼빈은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화함 없이 언급될 때,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 또한 지칭한다¹²⁸⁾고 말한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될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서로

127) Inst., I, 13, 20.

128) Ibid.

구별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 관계성에 의해 구별되실 때는 질서와 순서가 있다고 칼빈은 말한다. 성부와 성자, 혹은 성부와 성령이 동시에 언급될 때,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언제나 성부에게 특별히 적용된다. 이와 같이 하여 본질의 단일성이 보존되고 그 정당한 순서가 유지되며, 그렇다고 이것이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는다¹²⁹⁾고 주장한다.

칼빈은 삼위 하나님의 단일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혼동되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적 본질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우리에게 선형적으로 이해되고 질서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 가운데 구별되지만 그러나 결코 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며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b.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

하나님의 유일성은 이미 언급한 대로 그 신적 본질에 의해 증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유일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다시 반복해서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에 대한 동일한 칭호에 의해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증거한다.

(1)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칼빈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

129) Ibid.

님을 향하여 “주”라고 불렀던 칭호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을 강조한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은 바울의 말에서도 밝히 나타나고 있다.¹³⁰⁾ 그리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바울은 즉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라고 부연함을 말한다.¹³¹⁾

칼빈은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절대적인 칭호인 “주”라는 말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신성을 드러내며 일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2) 성부와 성령의 일체성

칼빈은 성부와 성령의 일체성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다. 특별히 삼위 일체에 대한 그의 진술의 첫 마디였던 하나님의 본질은 영적이라는 사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성부와 성령의 일체성을 증거한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을 온전히 “영”¹³²⁾이라고 부르셨다는 것과 이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성령의 신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과 다른 영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¹³³⁾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령의 일체성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는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본질의 한 실재로서 “하나님의 영”¹³⁴⁾이라고 불리우는 사실

130) 고후 12: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131) Ibid.

132)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33) John Calvin. 「성경주석: 요한복음」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 공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p 147.

134)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

에서 발견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과 본질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의 정의를 수호한다. 칼빈은 이러한 정의를 따라서 성자의 신성과 성령의 신성을 다양한 성경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해 논증해 나간다.

칼빈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여 성부와 성자의 신성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권능과 이적들을 성자와 성령께도 돌렸다는 성경 구절들의 증거들을 인용하여 성부와 성자의 신성을 증거한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 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과 삼위성을 증거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한 하나님 각위의 자존성과 하나님 각위의 상호 관계성에 의한 구별에 대해서 논증한다. 그리고 거듭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순서와 일체성에 대해 논증하는 것으로 장엄하고 명확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교리를 확증한다.

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IV. 결 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유일하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신앙 진리의 어느 것 하나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칼빈은 「강요」 I 권 13장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론에 대한 원론적인 논증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다.

II장에서는 칼빈의 신학적 사고를 알아봄으로 어떻게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시켰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을 중심으로한 신학을 전개한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의 권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을 돌려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칼빈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자였다.

그리고 성경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표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 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한 성경 중심의 사고를 한 신학자였다. 이 두 가지는 칼빈의 모든 신학에서 기초이자 기둥으로 서 있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로 하겠다.

III장에서는 칼빈은 영적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삼위일체론의 출발을 삼고 있다. 무한하시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육적인 우리 인간의 인식은 판단 중지를 선언해야 하며, 겸손히 성경의 진리 앞에 겸손히 순복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한 하나님으로 알려지신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한 정의를 증거하기 위해

철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며 분할 할 수 없다는 니케아 신조의 정의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일성과 신성에 대한 논증을 통해 삼위일체론을 증거해 나간다. 칼빈은 삼위일체론의 용어인 hypostasis와 person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여 동서방 교회의 차이를 정리하고 hypostasis와 substantia를 칼빈은 동일하게 이해하는 동방교회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서방교회에서는 본질(essence)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칼빈에게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온전한 신앙이 표현 방법에 따르는 용어의 불일치 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용어가 가르치는 내용이 옳다면 용어의 차이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칼빈은 삼위일체론을 논증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들을 제시한다. 창세 이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자는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 성경의 증거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증거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증거에 의해 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로 예언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 칼빈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여 삼위일체론을 논증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수많은 이적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칼빈은 성자의 신성에 대한 논증에 이어 성령의 신성에 대해 증거한다. 성령은 창세 이전에 혼돈 덩어리를 고이 품어 가지고 계시다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

지자들을 파송하시었다. 성령은 모든 선지자들의 유일한 교사요 인도자로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다. 또 성령은 만물을 보존하신다. 성령의 이러한 창조하시고,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만물을 보존 유지하시는 사역들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 해 준다고 칼빈은 말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다. 칼빈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여러 가지 신적 칭호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신성을 증거한다. 이러한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칼빈은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고 삼위일체론을 정립해 나간다.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에 대해 철저한 성경적인 증거를 한 다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위성에 대해 증거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보이시는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관계성에 있어서 구별성을 갖는다고 칼빈은 말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단일하며 분리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논증의 결론이다.

칼빈은 삼위일체론에 대해 가르치면서 인간의 사변에서 나오는 헛된 상상을 반대한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만을 가르치고자 한다. 칼빈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인식의 근거는 성경과 성령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신학적인 새로운 어떤 삼위일체론을 창작해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칼빈의 신학적인 진지함과 경건함 때문에 칼빈의 신학은 칼빈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곧 하나

님이시며,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의 정식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증거한다. 이러한 점에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차이를 갖는 것이다.

삼위일체론을 하나의 단순한 논리 체계로 수용하여 비슷한 유형의 종교 현상과 연관하여 비교하고 연구해 보는 재미도 학문으로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신학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유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영적 유익을 주는 성경적 진리인 것이다.

V.참고문헌

I 일차자료

<번역서>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II]. 한철하의 공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4.

_____. 칼빈 성경주석. 칼빈성경주석번역위원회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II 이차자료

<국내서적>

김광식. 기독교신학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 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5.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선집 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이신건. 조직신학입문.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이종성. 그리스도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3.

삼위일체론.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3.

신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차영배. 개혁교의학(삼위일체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번역서적>

Augustinus. 김종흡역. 삼위일체론.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Aulen Gustaf. [The Faith of the Christian Church]. 김관석 역. 조직신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Bavinck, Herman.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_____. [The Doctrine of God]. 이승구 역. 개혁주의 신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Berkhof, Louis.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신복윤 역. 기독교신학 개론.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_____.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권수경 · 이상원 역. 조직신학 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 Hodge, A.A. [Outline of Theology]. 고영민 역. 하지 조직신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Moltmann, J.. [Trinitat und Reich Gottes] 김균진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Murray J..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박문재 역. 존메레이 선집 I, 조직신학 I.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Niesel, Wilhelm.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 CENTURY THEOLOGY]. 신재구역. 20세기 신학. IVP 1997.